조계종 포교원, 제주 순례 '한라산 정기, 전법 ON'

6월 11일 2백 여 포교사들과 '관음사 순례길' 11km 행선

제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 목적의 차별화된 순례
제주 첫 도심 순례길로 관심
관음사부터 제주청사까지의
제주불교 포교史 재현 의미


전법의 불을 밝혀라.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사진 가운데)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사진 오른쪽), 포교부장 선업 스님(사진 왼쪽)을 필두로 순례 행렬이 제주 관음사를 출발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영원한 휴식처 제주도에는 불교만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들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조 제주 사찰이 훼철되며 사라진 지 200년 만인 1909년 갖은 어려움 속에 창건된 관음사부터 도내 유일한 고려시대 석탑이 있는 불탑사, 제주 비보사찰인 법화사, 약수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약천사와 수국명소로 거듭난 남국사 등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수세기 넘게 웅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찰의 이야기와 멋을 대중들에게 순례로 알리고 다시 사찰로 이끌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6월 11일 한라산 중턱의 제주 관음사부터 남국사를 거쳐 제주 정부종합청사 옆 시민복지타운 광장까지 진행한 '관음사 순례길' 순례는 산중사찰과 도심지가 순례를 테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엿보는 기회였다.

순례에는 순례를 주최한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포교부장 선업 스님, 연구실장 용주 스님, 포교국장 혜교 스님, 신도국장 윤성 스님, 사무국장 혜안 스님 등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법화사 주지 도성 스님 등 지역 스님, 김영석 포교사단장, 배동학 수석부단장, 이명직 포교사단장 등 200여 포교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순례가 시작되기 전부터 관음사는 제주지역단 포교사들로 북적였다. 포교사 단복 뿐만 제주지역단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앵두모양의 브로치 등을 맞춰 입은 포교사들이 늘어섰다. 이날 순례입재식은 창단 7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기도 했다.

이명직 제주지역단장은 "제주지역 포교사 183명이 전원 참석했다. 중앙에서 김영석 포교사단장을 비롯해 박해덕 경남지역단장을 비롯한 포교사들도 대거 참여했다"라며 "제주지역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포교사들의 단합을 이끌겠다. 한국불교의 희망이 포교에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순례 자리를 마련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이런 포교사들의 열정을 치하했다. 범해 스님은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한 전법ON 순례에 각 지역의 포교사들이 참여해 감사하다"며 "지역에는 각 지역만의 포교 방향이 있다. 소극적인 포교를 탈피해 적극적인 포교로 전환하자는 의미에서 순례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도 "1909년 관음사 창건 후 제주 도심포교당 개설까지 진행되어 온 제주불교의 역사가 순례로 다시 재현되는 듯하다"며 "관음사에서 시작해 제주시내까지 걷는 포교사들의 모습에서 제주 전법의 원력을 다시 느낀다"고 말했다.

입재식 후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전법ON 플래카드를 필두로 포교사들은 일렬로 제주시내까지 11km 거리를 약 3시간에 걸쳐 걸었다. 육바라밀에 맞춰 보시 지계 인욕 등 1조부터 6조까지 조별 깃발을 들고 포교사들은 묵언 행선을 이어갔다.

그동안 제주도에는 다양한 순례길이 만들어졌다. 사찰과 불교유적을 거쳐가는 올레길부터, 제주불교성지를 잇는 지계, 정진, 보시, 선정, 지혜, 인욕의 길 등이다. 여느 제주 순례길과 달리 포교원이 구성한 관음사 순례길은 산사에서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길이었다. 순례는 한라산 중턱부터 산간도로인 1117번길을 거쳐 간선도로인 5.16도로를 통해 진행됐다.

해안도로나 둘레길이 아니기에 조계종 포교원 종무원들과 포교사들은 형광색 조끼를 맞춰 입고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인도가 없는 길에서는 앞뒤 좌우에서 수신호를 통해 차량을 통제하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행렬을 적절히 끊고, 차량 흐름에 맞게 순례를 유도했다.

이날 순례는 포교부장 선업 스님의 선창 아래 전법 구호 3창으로 마무리 됐다.

조계사 지근거리 16층 재건축…훼손 우려

서울시 도시계획소위, 6월 9일 코리안리 건물 정비계획 가결
지하 6 · 지상 16층 대규모공사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지근거리에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건물 재건축이 예고되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조계사에서 입접한 위치여서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보물 등 문화재가 봉안된 전각이자 서울시유형문화재인 대웅전과도 직경거리 100m 이내여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불 보듯 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6월 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 구역은 코리안리재보험 본사가 위치한 수송동 80번지로, 현재 지하 3층 · 지상12층, 연면적 3만9357㎡ 규모의 기존 코리안리 건물을 지하6층 · 지상16층, 연면적 약 9만3000㎡ 규모로 증축한다는 내용이다. 용적률은 800% 이하, 건물 높이는 70m 이하로 적용했다. 코리안리 측은 해당 건물에 1004석 상당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며, 또 기존 건물 외에 인근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기부체납키로 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송동 80번지 일대 코리안리재보험 빌딩은 1985년 4월 준공 이후 36년 이상 경과해 건출물 안전과 도시 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내부 설비 노후화로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토지 소유자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공연장) 건립계획을 제안했고 용적률 800% 이하, 높이 70m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향후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공사 부지와 조계사와의 거리가 20m 남짓할 정도로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공사가 워낙 대규모인데다, 사실상 조계사가 위치한 골목인 도화서길 바로 건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사는 이미 1996년 현대건설이 한국일보 신본관 신축 공사를 진행한 당시,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이 뒤틀리는 등 훼손현상이 발생해 해체보수를 한 바 있다.

무엇보다 조계사는 현행법상 문화재 보호 적용지역이자, 수많은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법회와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계사와 이에 대한 협의는 커녕, '앙각(仰角, 위로 바라보는 각도)' 외에 신도들의 불편사항이나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방안은 협의 ·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장은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 재개발 과정에서 70m 층고 높이와 관련해 조계사 법회 등 문화행사 저해요인을 비롯한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면, 토지주와 조계사가 향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해당 정비계획을 가결한 상황에서 남은 절차는 종로구청의 실시계획 인가가 유일하다. 교통영향평가 등을 기준으로 한 실시계획이 인가될 경우 통상적으로 착공이 가능해 진다. 코리안리 측은 완공 시점을 2026년으로 잡고 있으며, 신축 건물 디자인과 관련해 국제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조계사에서 불과 골목 하나 건너는 위치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다면 전각의 균열이나 뒤틀림 등 실질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발달장애인 · 가족 비극적 죽음 막아야"

조계종 사노위, 6월 14일 삼각지역 고인들 극락왕생 발원 기도회 봉행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6월 14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 · 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에서 고인이 된 발달 ·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함께한 이날 기도회



는 5월 23일, 6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품에 안고 생을 마감한 모자 등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과중한 돌봄과 간병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매일 한계를 경험하면서 죽음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 자리가 추모를 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고통이 사회공동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동국대 새터민 학생들 위한 특별한 장학금

스님들, 건학위 '지역 미래불자 장학'에 2000만 원 전달

스님들이 북한 출신 동국대 재학생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동국대에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6월 14일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북한 출신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지금된 장학금은 총 2000만 원으로, 이는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대구 금화사 주지 진성 스님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했다. 수여식에는 후원 스님을 대표해 해운 스님이 참석했다.



또한 행사를 축하하고 새터민 동국대 재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새터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학교 측에서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진명 스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과 장학생 15명이 함께 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등록금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문자승 스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미래불자 육성장학이 16회를 맞이해 특별히 북한 출신 장학생을 선발했다"며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바람을 전했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